

악성앱 유도 후 실시간도청까지...영화 뺨친 보이스피싱

사회초년생부터 60대까지...166명으로부터 61억 뜯어내 휴대폰 938대 악성 앱 감염시킨 뒤 전화발신 가로채기도 경찰, 중국 소재 의심되는 조직 총책 등으로 수사 확대

경찰을 사칭한 악성 앱을 유포해 166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붙잡혀 구속됐다. 이들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전화를 가로채거나 실시간 도청 등의 수법을 활용했는데,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20대 사회초년생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A(44)씨와 B(35)씨, 중국 국적의 C(32)씨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26일로부터 2019년 4월17일까지 약 6개월간 피해자 166명으로부터 총 6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을 지켜준다거나, 휴대폰에서 악성 앱을 탐지해준다는 구실로 접근한 뒤 휴대폰 총 938대에 악성 앱을 설치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들로부터 교묘하게 꾸민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 공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앱을 다운로드 했다고 한다.
이 앱은 겉으로는 실제 경찰청이 운영하던 '폴-안티스파이' 앱과 똑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었지만, 설치 순간부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내 연락처나 통화·문자메시지 내용, 위치 정보까지 탈취해갔다.
또 피해자들이 사기를 의심해 실제 정부나 금융기관에 전화하는 순간, 중국에 위치한 조직의 콜센터로 발신을 전환시킬 수도

있었다. 이들이 앱을 통해 가로챘 정부, 공공기관, 은행 지점 등 번호는 총 7099개에 달했다.
게다가 이 앱에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용은 물론 주변 음성까지 실시간으로 도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실제 피해자 중에선 경찰서를 찾아 사건을 접수한 뒤 건물을 나오자마자 '다 들었다. 경찰서 다녀왔느냐'는 협박 전화를 받은 사례도 나왔다.
이들은 동남아시아나 중국보다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만에 서버를 두고,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휴대폰에서 앱이 잘 구동되는지 주기적으로 시험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꾸준히 앱을 암호화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최대 피해금액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신혼집 마련 등 결혼자금을 구하려는 피해자에게 사기범들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수차례 돈을 뜯어낸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들의 서버 등을 차단함과 동시에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 사기 조직의 총책, 다른 조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정부 기관도 카카오톡 등 쪽지창, 소셜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공문서 등을 제시·발송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캠퍼스의 봄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활짝 핀 목련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올해도 전 국민 무료 코로나 접종...4분기에 연 1회

질병청,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본방향 발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접종처럼 연 1회로 바뀐다.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정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더라도 올해까지는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방향은 ▲현재의 방역상황과 전 국민의 면역수준 ▲백신의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등 객관적 근거 ▲접종정책에 대한 국민수용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해 수립했다.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목적은 중증·사망 예방이다. 단 예상치 못한 신규 변이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유행 억제를 위한 접종이 시행될 수 있다.
접종 시기는 10~11월 중이며 연 1회다. 다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항성은 2분기와 4분기 등 연 2회 접종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접종을 정기적인 백신 접종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권고했다. 미국과 일본도 연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은 고위험군에 한해 봄·가을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지 청장은 "아직 정기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2024년도부터 어떻게 접종을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 예방접종전

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접종 대상은 전 국민이며 비용은 무료다. 지 청장은 "위험도가 낮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에 비해 백신을 맞은 분들이 더 보호가 되는 것은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연내에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등급이) 4급으로 전환하더라도 올해 접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고령층의 경우 기존에는 60세 이상이었으나 누적 치명률 등을 고려해 65세로 상향했다.
접종할 백신은 국내 발생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지 청장은 "6월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백신주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4월7일까지만 진행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도 현재 1만7000여개에서 5000여개로 줄었다. 5000여개는 2월 접종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지역별로 최소 3개소 이상은 유지한다.
다만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할 경우 접종유지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다. 12세 미만 소아 및 영유아 접종 인프라는

현행 유지한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휴무 권고 유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논의 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질병청이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백신은 약 4200만회분이고 이중 약 3500만회 분은 유효기간이 4월까지다. 지 청장은 "폐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공여나 유효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이 7528명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으며, 항체값은 약 10개월 이상 장기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감염 소요기간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2회 감염의 평균 소요 기간은 약 10개월로, 지난해 7월 약 5개월보다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난 2021년 2월 처음 시행했으며 그해 10월에 3차 접종, 2022년 2월에 4차 접종, 같은 해 10월에 동절기 추가접종이 실시됐다.
그간 활용된 백신 종류는 단가 백신을 포함해 총 10종이었고 3월13일 기준으로 1억3800만회분의 접종이 이뤄졌다.
접종률을 보면 1차 87.6%, 2차 86.8%, 3차 65.7%이며 고위험군 권고 방식으로 변경한 4차 접종은 60세 이상 접종률 44.3%, 동절기 접종은 60세 이상 35.3%다.
역학적 분석 결과 백신 접종을 통해 지난 2년간 약 14만3000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